

도암 정돈섭(陶庵 丁敦燮)의 삶과 시 세계 고찰

- 중국 이주 전후를 중심으로 -

한길로*

|| 차례 ||

- I. 서론
- II. 도암의 삶의 전개와 중국행의 동인
- III. 중국 봉천 이주 전후의 시적 면모와 지취
- IV. 결론

【국문초록】

경북 영주 출신의 도암 정돈섭(陶庵 丁敦燮, 1870~1941)은 과거 공자가 언급한 이른바 ‘피세(避世)와 피지(避地)’를 식민지 시기의 처세 준칙으로 삼고, 이를 종신토록 ‘실천’하는데 진력한 근세 유학자였다. 그의 삶의 지향과 실천 의지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실례는 역시 ‘중국’으로의 이주였다. 그는 1910년을 전후로 난세를 피해 두문불출하다 1914년 중국으로 이주했지만 기대했던 성과 없이 귀국하게 된다. 2차 이주 이후 재차 국내로 돌아온 1917년부터,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둔 채 간혹 기행을 하며 현실의 고뇌와 회한을 토로했다. 72세의 노구를 이끌고 감행된 1941년의 마지막 중국행은, 19세기 이래로 중국으로 향했던 수많은 유자가 보여준 의리 정신의 계승이자 중국적 면모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삶의 지향은 그의 한시에도 심분 반영되었다. 그의 한시에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식민지가 된 ‘고국의 현실에 대한 비탄’의 정서가 주를 이루면서도, ‘이민자의 애환과 고국에 대한 향수’ 역시 절실히 녹아 있었다. 즉 식

* 길림대학 한국(조선)어학과 부교수

민지 시기 지방 유림의 복잡다단한 내면과 난세의 현실과 일절 타협하지 않고 자 했던 지사(志士)의 자의식이 기저에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그의 삶과 한시는 해외 이주를 경험했던 근대기 전통지식인의 내적 고뇌와 일제에 대한 ‘비타협의 의지’를 담고 있어, 근대기 유림의 현실대응과 한시의 존재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정돈섭, 『도암집』, 덕흥보, 동삼성한인공교회, 근대 한시

I. 서론

20세기 초 미증유의 국난을 맞은 상당수의 지방 유림들은,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중화 문명의 복판으로 이동했다. 자정(自靖)을 고수하며 지조를 지키면서도 이주 한인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일조하기 위한 집단 이주의 길을 택했다. 경북 영주 출신의 도암 정돈섭(陶庵 丁敦燮, 1870~1941)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암의 삶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그와 동문수학했던 외재(畏齋) 정태진(丁泰鎭, 1876~1959)·서주 김사진(西洲 金思鎭, 1878~1954)에 대한 연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돈섭에 대한 연구는 개진되지 못했다.¹⁾ 이는 대한제국의 망국과 세도의 쇠퇴를 바라보던 그가

1) 정돈섭의 함께 수학했던 정태진과 김사진에 관한 연구는 근래에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두 사람의 삶과 사상 그리고 시 세계에 대한 집중과 함께 연민 이가원과의 연관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권오영, 「외재 정태진의 삶과 사상」, 『연민학지』 31집, 연민학회, 2019, 함영대, 「연민 이가원의 학문 연원과 외재 정태진」, 『연민학지』 36집, 연민학회, 2021, 심경호, 「외재 정태진의 시문에 대한 규견」, 『연민학지』 37집, 연민학회, 2022, 김문식, 「외재 정태진의 현실개혁 방안」, 『연민학지』 37집, 연민학회, 2022, 최영성, 「외재(畏齋) 정태진(丁泰鎭)의 한시 연구」, 『연민학지』 37

은거를 통한 자정(自靖)을 추구했기에 구체적인 활동이 쉽게 포착되기 어려운 측면과 연관된다. 또한 그가 생의 마지막을 중국에서 마친 것도 영향이 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담고 있는 일련의 기록과 한시 작품은 ‘국망과 (식민지) 근대’라는 총체적 혼란기를 살아간 지방 유림의 삶과 한시를 다채롭게 조명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즉 무너져가는 유교적 가치에 탄식하면서도 일제에 대한 비타협 의지를 ‘해외 이주’라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간 당대 지방 유림의 ‘일면’을 보다 선명하게 살필 수 있게 만든다.

상술한 것처럼 그는 독립운동에 투신하거나 혹은 사실상 절명의 위기에 놓인 선현들의 학문을 이어받아 이를 발전·계승하는데 진력하는 길이 아닌, 공자가 언급한 “피세(避世)와 피지(避地)”의 가치에 주목하며 이를 ‘실천’하는데 투신한 유학자였다.²⁾ 그의 삶의 지향과 실천 의지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실례는 역시 ‘중국’으로의 이주였다. 총 세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이주를 시도한 끝에 그곳에서 삶을 마감한 그의 이력은 대단히 특수한 사례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1910년을 전후로 난세를 피해 두문불출하다 1914년 중국으로 이주했지만 기대했던 성과 없이 귀국하게 된다. 2차 이주 이후 재차 국내로 돌아온 1917년부터,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둔 채 간혹 기행을 하며 현실의 고뇌와 회한을 토로했다. 이후 1941년, 72세가 된 그는 3번째로 중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즉 그의 생애는 식민지가 된

집, 연민학회, 2022, 구지현, 「연민(淵民)의 기록을 통해 본 외재(畏齋) 정태진(丁泰鎭)의 표상」, 『연민학지』 37집, 연민학회, 2022, 허권수, 「외재(畏齋) 정태진(丁泰鎭)의 생애와 학문」, 『연민학지』 37집, 연민학회, 2022(이상 정태진), 권오영, 「서주(西洲) 김사진(金思鎭)의 삶과 학문성향」, 『연민학지』 36집, 연민학회, 2022.)

2) 『論語·憲問』, 子曰: “賢者辟世, 其次辟地, 其次辟色, 其次辟言.”

고국의 변모를 온몸으로 체감하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신(遺臣)’의 자의식을 견지하고 유자의 소명을 모색하며 살아간 사실상 마지막 유림 세대가 보여준 생의 궤적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그의 삶의 궤적과 곡절, 그리고 이를 여실히 담고 있는 한시 연구는 당대 재야 유가 지식인의 내면과 현실 인식을 폭넓게 조명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과 한시는 식민지라는 일대의 혼란기를 겪은 전통지식인의 내적 상흔과 일제에 대한 ‘유교적인 비타협’의 길을 담고 있는 유의미한 자취로, 근대기 유림의 현실대응과 한시의 존재 양상을 규명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도암의 삶의 전개와 중국행의 동인

정돈섭의 자는 백승(伯崇), 호는 도암(陶庵), 본관은 나주(羅州)로, 나주 정씨의 세거지 중 하나인 영주의 줄포리(茁浦里)에서 태어났다.³⁾ 증조부는 정의찬(丁義贊), 조부는 정원교(丁遠教), 부친은 정대진(丁大稹)이다. 이들은 ‘소연(蕭然)한 한사(寒士)’의 표상으로 세상의 공명에 마음 두지 않은 채 자연에 은거하며 시를 통해 성정지발(性精之發)을 높이 읊었던⁴⁾ 입향조 정언숙의 유훈을 계승하여 일부 세도 가문에 잠

3) 검암(儉巖) 정언숙(丁彦肅. 1600~1693)이 병자호란 이후 벼슬을 포기하고 영주 줄포리에 완전 이거하면서, 이곳은 나주 정씨의 세거지가 되었다.

4) 郭鍾錫, 『儉巖詩集序』, 『俛宇集』 135, “蕭然寒士之標, 而嘯鳳太和, 怡乎其有無名! 公之眞樂矣, 是其性精之發於吟哦者.” 참고로 『검암시집(儉巖詩集)』은 후손인 정돈섭과 정대진에 의해 1911년 간행되었다.

식된 당세에 나아가지 않고 유도(儒道)와 천부(天賦)의 성정을 묵수(墨守)하던 가풍을 이어갔다.

정돈섭 역시 이러한 자장 속에서 성장했는데, 그의 본격적인 한학 입문은 13세 때인 1882년이였다. 그는 부친의 명으로 퇴계의 후손인 동정(東亭) 이병호(李炳鎬, 1851-1908)의 문하에서 일가인 정태진과 지우인 김사진 등과 함께 수학하며 성리설의 기초를 닦았다. 이후 동정과 교류하던 곽중석(郭鍾錫)을 만나게 되었는데 정돈섭의 재능과 품성을 눈여겨본 곽중석은 1887년 “더불어 도를 구할 만하다”며 정돈섭에게 ‘백숭(伯崇)’이란 자를 지어주며 학문에 더욱 전념하게 하였다.⁵⁾ 이황의 출처관을 십분 긍정하며 ‘도를 행하지 못한다면 관직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곽중석의 언급을 고려해보면, 이 시기 정돈섭 또한 시대적 배경과 결부되어 과거 공부에 연연하는 학문과 작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⁶⁾

성산(箴山_현 기장 일대_필자주)에서 열리는 월삭(月朔) 강회에서 스승들의 극진한 지도 하 『태극도설』을 포함한 각종 성리설을 집중 공부하게 된 그는 학문과 시숙을 바로잡을 여러 저술을 통해 그 능력을 십분 인정받게 된다.⁷⁾ 다만 이 사이 심신을 크게 소비한 그는 건강에

5) 金佑林(一名槐), 「行狀」, 『陶庵集』卷6, “郭先生見其動止安重, 氣度清遠, 目之以可與適道, 迨其既冠而作字辭, 以期勉之.” 참고로 ‘도암’이란 호 역시 면우가 그에게 지어준 것이다. (郭鍾錫, 「丁伯崇字辭」(丁亥. 1887), 『俛字集』卷131, 丁奎應, 「先府君家傳」, 『陶庵集』卷6, “字伯崇, 號陶庵, 皆俛字先生所親命也.”)

6) 설석규, 「면우 곽중석의 성리학 이해와 현실대응 자세」, 『오늘의 동양사상』 11집,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4, p.365.

7) 이 시기에 탄생한 저술로는 「聖學十圖贊」·「執中論」·「科舉論」·「時雨頌」(『陶庵集』卷4) 등이 있다. 참고로 본고에서 논하는 정돈섭 생애 관련 자료는 『陶庵集』卷6에 수록된 「行狀」(金佑林, 一名槐)·「先父君家傳」(丁奎應)·「墓誌銘」(金承學)·「墓碣銘」(李家源)·「跋」(裴東煥) 등에 기초한 것임을 밝힌다. 참고로 『도암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에 1889년(20살), 스승 이병호 및 신와 홍낙중(愼窩 洪洛鍾, ?~?)·학산 강빈(鶴山 姜鑛, ?~?) 등과 함께 태백산에 오르고 또 동해안 일대를 역람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때 그는 동해의 명승 ‘죽서루(竹西樓)·능파대(凌波臺)·만리도(萬里島)’ 등을 기행하며 호연지기를 길렀다. 기행 이후에는 이병호와 함께 영주로 돌아와 유석암(留石庵)에 머물며 『심경(心經)』과 『근사록(近思錄)』과 같은 책들을 얻어, 곱어보며 읽고 우러러 사색하는 등 학문을 심도 깊이 철차탐마하는 시간을 보냈다.⁸⁾

하지만 청년 시기, 스승의 지도하에서 학문에 매진하던 그의 삶은 이 시기 다른 유자들과 유사하게 평탄히 이어지지 못했다. 조선 말기의 내부 혼란과 서세동점의 위기감, 그리고 대한제국의 탄생 이후 점차 현실화 되어가는 일본의 조선 지배의 암운은 그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다. 더욱이 학문에 입문시킨 스승 동정이 1908년 사망하였고 당시 면우도 거처를 거창으로 옮긴 상황이었다.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정미년(1907)에 조우한 내우와 경술년(1910)에 마주한 국가의 변란으로 더욱 답답하고 애틋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에 자주 “이 구차한 생과 더불어 이적의 압제를 받게 되었으니 차라리 저 멀리 요동과 간도 땅으로 떠나 몸을 깨끗이 하고 뜻을 길러 이로써 선비의 뜻을 저버리지

집』(6권3책)은 그의 아들 정규웅의 노력으로 사후 25년만인 1966년 배동환(裴東煥)의 발문과 함께 간행되었다. 본고는 “한국학종합DB”의 ‘한국역대문집DB’에 탑재된 영인본을 저본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 8) 金承學, 「墓誌銘」, 『陶庵集』卷6, “月朔會講, 太極圖說使一一究解, 己丑(1889)終東翁及愼窩洪洛鍾·鶴山姜鑛登太白, 汾東海歷覽, 竹西凌波萬里島有紀行篇尋, 又陪東翁留留石庵, 取心近諸書, 俯讀仰思.”

않는 것이 낫지 않을런가”라고 탄식했다. 마침내 (면우가 머물던 거창의) 다전(茶田)에 서신을 보내 “천하의 일이 나라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과 가문도 애석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의 도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부자의 승부지탄(乘桴之歎) 또한 이미 옛일로, 이 세상에는 바다조차 없어졌으니 묻하는 어느 곳에 거처하여 돈독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몸이 비록 난세의 말년에 태어났으나 이 뜻만은 천년 세월 위에 두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공맹의 사업을 이르고 배우는 것은 가능할지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직임과 일개의 심신 또한 어찌해야 할지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수차례 옮겨 다니며 일정한 거처가 없었다.⁹⁾

주지하듯, 1910년에 발생한 국난이라는 참담한 현실은 당시 일대 유림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충격 이후 이들의 시선이 집중된 곳은 요동 및 서간도 일대였다. 1910년 함안 유림 일현(一軒) 조병택(趙鼎澤, 1855~1914)이 이거를 위해 국경을 건너 서간도를 둘러보았고, 1912년 회당(晦堂) 장석영(張錫英, 1851~1926), 1913년에는 물와(勿窩) 김상옥(金相頊, 1857~1936)과 서천 조정규(西川 趙貞奎, 1853~1920) 역시 이거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 기행에 올랐다.¹⁰⁾ 즉 이 일대 유림들의 중국행은 1910년 이후의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이념적 근거에는 정돈섭이 논한 것처럼 공자의 ‘부해(浮海)’가 있었다.¹¹⁾

9) 위와 같음, “丁未遭內憂, 庚戌遇國變, 尤悒悒, 不自持, 常嘆曰: 與其苟生, 而受制於夷狄, 無寧遠舉于遼島, 潔身養志, 以無負於士之義乎! 遂與其書茶田曰: 天下事以至無國矣, 身家不足惜, 奈吾道何? 夫子乘桴之歎, 亦已古矣, 此世無海, 未知門下何以處之歎也? 生雖晚於季世, 此志未嘗不在於千載之上矣. 自謂孔孟事業, 學則可能, 到今自家句當, 一箇身心, 亦似不得爲之何哉! 自是數遷徙, 無常居.”

10) 한길로, 「물와 김상옥의 「증주기행」 고찰」, 『석당논총』 80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1, pp.67-90.

이는 1907년 이후 공자의 부해를 떠올리며 도통의 전수를 위해 국내의 벽지와 섬을 찾아 후학들과 강학하는 삶을 선택했던 호남의 전우(田愚, 1841~1922)와는 다른 선택이었다. 다시 말하면 정돈섭을 포함한 상당수의 영남 일대의 유학자들은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유도의 계승과 국망의 위기 해결을 함께 도모하려는 태도를 보였다.¹²⁾ 결국 ‘고정된 거처가 없었다.’라는 위의 언급은 지역 일대 유림의 집단지성의 배경하, 이 시기를 기점으로 중국으로 떠나려는 그의 결심이 비교적 강하게 자리했음을 보여주는 언급이었다.

이후 또다시 그는 성산(星山)으로 이주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안정되지 못했다.¹³⁾ 이로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해외 이주를 준비했고 그 장소는 역시 ‘중화’의 본고장 중국이었다. 그는 안동 유림 류도헌(柳道獻, 1835~1909)의 문인 계칠(季七) 이광룡(李光龍, ?~?)과 함께 본격적인 이주 준비에 나섰다.¹⁴⁾ 정돈섭은 당시 봉천 덕흥보(德興堡)에서 농장 개척을 준비하던 한계 이승희에게 서찰을 보내 그의 독립운동을 지지하면서도, 공자교 운동 및 한인 공동체 구축 사업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후 이승희의 흔쾌한 수락에 그는 곧장 길을 떠났다.¹⁵⁾ 그것은 곧

11) 『論語·子罕』, “子欲居九夷, 東方之夷有九種, 欲居之者, 亦乘桴浮海之意.”

12) 유지웅·황갑연, 「간재 전우의 시대인식과 이론적 배경」, 『유교사상문화연구』 82집, 한국유교학회, 2020, p.107.

13) 이욱고 그는 부해(浮海)에 대해 결심을 하게 되고 스승 박종석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기에서 그는 “풍산의 우소에서 칠수하고 성산의 농막을 새로 짓지하였지만 고되고 힘든 것만 알겠고 인생에 편한 거처는 없는 듯하니 이는 어떤 세상인지요? 서쪽으로 갈 계획은 이미 많은 사람이 기대하며 추구하는 바이니, 그것을 사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사를 전했다. (丁奎應, 「先父君家傳」, 『陶庵集』卷6, “是冬先生有書曰: 豐寓之撤, 而星庄之新占, 良覺勞勞, 人生無安宅, 此何世也? 西爲之計, 既爲衆望所推, 其不可辭也.”)

14) 위와 같음, “明年二月與李上舍光龍, 遂共謨北征之約, 乃涉淇水.”

난세를 맞은 유자로서의 도리이자 처세 원칙 중 하나로 제시된 “거지수구(去地守舊)”의 길이었다.¹⁶⁾

1914년(그의 나이 45세) 2월, 그는 당시 중국으로 향한 여타의 유럽과 동일하게 기차를 타고 먼 여정에 나섰고 김천에서 출발하여 ‘한양-개성-평양-신의주-고려문-봉황성’을 거쳐 봉천에 당도했다.¹⁷⁾ 그곳에서 그는 한계 이승희·서천 조정규 등과 함께 새로운 유교공동체 및 한인 독립운동 기지로 낙점된 ‘덕홍보’로 향했다.¹⁸⁾ 그곳에 당도한 그의 생활은 다음과 같았다.

농장 덕홍보를 점지하고 그곳의 황무지와 못을 개간했는데 공은 날마다 삼태기와 쟁이를 잡고 직접 밭 갈아 심으며 아침에 나갔다고 저물녘 돌아왔다. 밤에는 소매를 정제하고 책상 앞에 마주하고는 심경(深更)에 이르도록 올곧이 앉아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 피로가 이미 심한 것을 걱정했다. 이에 “마음이 수고로우면 곧 편하면서도 힘들겠지만, 마음이 한가로우면 힘들어도 편한 것이니 나는 그 힘들음을 모르겠노라”라고 했다.¹⁹⁾

15) 그가 이승희에게 보낸 편지는 『도암집』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이승희의 답신을 통해 그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 당시 봉천에 머물던 이승희는 정돈섭에게 보낸 답신에서 “백경(伯敬, 정돈섭·필자주)은 오히려 가까이 있었으나 보지 못하였으니 또한 멀었던 것이지요. 오직 조만간 손잡고 뵈 일을 바랄 뿐입니다.”라고 했다. (李承熙, 「答丁伯崇敦燮」, 『韓溪遺稿』卷7, “伯敬尙在近而不面, 亦遠也, 惟冀早晏握叙.”)

16) 참고로 이는 의암 유인석이 제시한 “처변삼사(處變三事)” 중 하나이다.

17) 1913년 봉천을 다녀온 조정규의 기록인 「북정일록(北征日錄)」(『西川集』卷1)을 참조해 보면, 영남에서 봉천까지는 약 15일을 가량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 金佑林(一名金槐), 『陶庵集』卷6, 「行狀」, “遂涉泃水抵遼山, 訪李大溪翁承熙奉天寓館, 西川趙貞奎, 與之相避.”

19) 위와 같음, “因占農庄德興堡, 墾起荒湫, 公日操畚鍤, 躬親耕稼, 朝出暮歸. 夜則整襟對案, 兀坐以至深更, 人或問其疲勞已甚. 則曰: 心勞則逸而勞; 心逸則勞而逸, 吾不知其勞也.” 참고로 “心勞則逸而勞; 心逸則勞而逸”은 정돈섭의 선조 정범조(丁範祖, 1723-1801)의 문장과 일치하다. (『海左集』卷36, 「贈左贊成行工曹判書李公」)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현지에서 그들의 일상은 이른바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연속이었다. 그저 과거의 권위에 기대어 개척사업을 관망하는 것이 아닌, 직접 현장에 위치하여 함께 땀 흘려 일하면서도 학문 역시 등한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자의 본분을 고수했던 것이다. 또한 이 시기 봉천에 머물던 그는 (음력) 8월에 열리는 공자탄신제를 맞아 조정규·이광룡 등과 함께 직접 곡부로 향하여 한중 유럽의 교류를 촉진하고 ‘동삼성한인공교회’의 향방에 대해 의논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서책이나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태산과 황하를 직접 굽어보았고 공묘를 직접 배알하며 깊은 감격과 회한에 젖었다. 그는 고유문(告由文)을 통해 “성령께서 환히 임하시어, 우리나라 무한히 보우하소서.”라며 나라 없어 돌아갈 곳 없는 유신(遺臣)의 비애에 읊었다.²⁰⁾ 또한 당시 그는 그곳을 지키던 공자의 후손이자 곡부공교회 총리 공상림(孔祥霖, 1852~1917)과 지역 선비들에게 자신이 중국에 온 뜻을 전하며 “상투가 잘리는 치욕을 입을 바에야 차라리 죽어 (곡부의) 궁장(宮牆) 곁에 뼈를 묻는 것이 낫겠지요”라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고 전한다.²¹⁾

이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여의도의 2/3에 해당하는 약 560,000평 규

이를 근거로 미루어 살펴보면 그는 평소 이 문장을 유념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 노력했다고 판단된다.

20) 『陶庵集』卷4, 「告曲阜聖廟文」, “父師之詔, 無國何歸. …… 聖靈昭臨, 佑我無疆.” 곡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는 『퇴계집』과 『성학십도』 등을 곡부공교회에 전달하여 퇴계의 사상이 근대 중국 학자들에게 다시금 소개되고 관심을 끌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리고 1917년 12월 국내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선조 정시한(丁時翰, 1625~1707)의 문집 『우담집(愚潭集)』을 곡부공교회에 보내기도 했다. (정순목, 「臺灣·中國에서의 退溪學 研究」, 『한국의 철학』 19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1, p.20.)

21) 丁奎應, 앞과 같음, “被髮之恥, 寧死而閉骨於宮牆之側, 魯之士聞之, 莫不惕然.”

모의 덕홍보는 봄철 해빙과 동시에 소택(沼澤)이 되어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²²⁾ 그해 겨울 그의 부친마저 건강이 좋지 않자 그는 12월 부득이 일시 귀국하게 된다.²³⁾ 하지만 선친은 그에게 ‘궁핍과 배고픔을 싫어하고 배부르고 따뜻함을 탐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고, 안분을 지키라’는 말과 함께 다시금 봉천으로 돌아가 유도의 수호와 선현들의 의기를 전승하라는 뜻을 간곡히 전했다. 이후 그의 마음에는 하루도 요동으로 향하는 계획이 사라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²⁴⁾ 한편 이 사이 당시 봉천에 머물던 이승희가 1916년 사망하면서 봉천의 유림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그는 1917년 김사진과 함께 2월 봉천으로 향해 다시 농장 경영을 시도했다.²⁵⁾ 이는 선유들의 좌절을 극복하고자 그들이 혼신을 바치며 염원했던 유교 공동체 구축을 다시금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하지만 이 역시 실패로 귀결되어 약 10개월 만에 재차 귀향하게 된다.²⁶⁾

이후 3.1운동에서 1940년대 초까지, 그의 국내 행적은 비교적 간명하다. 이는 이른바 ‘문화통치’라는 명목으로 더욱 가속화된 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피세’의 의지를 지속하기 위한 방도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가 머물던 경북 일대는 ‘곽종석·장석영·김창숙’ 등이

22) 한길로, 「1910년대 지방 유림의 중국 이주 과정과 귀향의 동인 고찰」, 『인문논총』 79-1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p.166.

23) 金佑林(一名金槐), 앞과 같음, “十二月始歸鄉.”

24) 丁奎應, 위와 같음, “今我輩貧賤人, 期欲厭窮餓貪飽煖, 豈無恥之甚者乎! 遵我命戒安分 …… 其渡遼之計, 未嘗一日去子懷也.”

25) 위와 같음, “却因溪公徑逝, 宿同志似皆落落難合.”

26) 위와 같음, “丁巳(1917)春, 又入遼地, 設農于山裏村(在奉天西十里), 又見敗, 十二月乃歸.” 참고로 귀국한 그는 곡부의 공상림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당시의 사정과 국내로 돌아오게 된 연유와 함께 재차 중국에 갈 뜻을 피력했다. (『陶庵集』卷3, 「與孔提學」)

주축이 된 소위 ‘파리장서사건’의 중심이었기에 일제의 감시와 회유는 대단히 심했으리라 추정된다.²⁷⁾ 더욱이 1921년, 그의 스승 곽종석마저 죽음을 맞으면서 그는 커다란 비탄에 빠지며, 이로부터 세상을 멀리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견지한다. 이에 그는 ‘두세 명의 동지들과 북쪽의 단월(丹越, 충주_필자주) 또 서쪽의 송악으로 유람을 다니며, 내면에 커커이 쌓인 깊은 울분’을 시를 통해 토해내며 스스로 세운 삶의 지향을 일관되게 지켜가는 방법을 택했다.²⁸⁾ 하지만 일제 말, 이른바 총동원체제가 본격적으로 일상에 침투하자 그는 다시금 큰 결단을 하기에 이른다.

신사년(1941) 4월 다시 요동행을 결정하여 길림성 영길현²⁹⁾ 산모통이에 이르렀다. 먼저 장자 규환을 파견하여 장원(莊園)을 빌려 설립하였고 공계서 돌아 이르시다 그만 병이 나고 말았다. 신음하시며 한 달을 보내시다가 6월 22일,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종명하셨으니 공의 나이 72세였다. 먼 길에 나서려 하자,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이 해 먼 길을 떠나면 우환이 있을까 두려워하며 말려보았지만 듣지 않으시며 “내가 무엇을 구하겠느냐? 내 몸을 깨끗이 하여 결토(潔土)에 묻히는 것, 이것이면 되노라.”라고 하셨다. 돌

27) 그 회유 수단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내지시찰”이 활용되었고 이때 이 지역은 “경북유도진흥회”가 시찰에 참여한다. 물론 이 단체는 상당 부분 유림이라는 이름을 참칭한 지역 유력자들 중심의 관변 단체의 성격이 짙었다. 다만 동 시기 ‘전남·개성·충북·평북·황해도’ 유림단체와 달리 경북유도진흥회가 1920~1927년까지 해마다 파견한 것으로 보면, 이 지역 유림에 대한 총독부의 관심과 회유가 보다 적극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주현, 「1920년대 유림계의 내지시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3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p.112.)

28) 丁奎應, 위와 같음, “自是, 偕二三同志, 北遊丹越; 西遊松嶽, 以紓幽鬱之志.”

29) 이곳은 현재 길림시의 현으로 길림(吉林)과 길림성의 성도 장춘(長春) 사이에 있고, 송화강 상류 지역에 속하며 발해 유적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1885년을 전후로 많은 한인들이 유입되었는데 그가 도착한 1941년 영길현에서는 국내 교민들이 친일학교 수업거부 운동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민족교육 공작을 위한 지하조직이 활동하고 있었다. (熊谷正秀, 「중국 길림성 영길현의 조선족」, 『아세아연구』 35-2집,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2, pp.215-218.)

아가시기 며칠 전, 그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죽은 곳에 따라 묻을 뿐 반장(返葬)을 하지 말거라. 또 망령되이 의물(儀物)을 준비하여 영화로움을 구하는 일이 있으면 마땅하지 않을지니 초라한 장례라도 상심할 것 없다. 내가 지금 여기에 온 이상 결단코 다시금 압록강을 넘고 싶지 않으니 너는 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³⁰⁾

72세의 그가 중국행을 택한 배경은 역시 일제 말기에 횡행된 창씨개명과 같은 민족말살정책이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 유언에서 밝힌 것처럼 그의 중국행에 담긴 내적 배경은 최초 중국으로 향했던 1914년의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민족의 탄압과 강제 지배를 거부한 채 유자(儒者)의 기상과 지조를 보존하며 생을 마감하고자 했던 일관된 내적 지향이었다. 1915년 곡부에 도착한 그가 ‘이 땅에 뼈를 묻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중국에서 삶을 마감하려는 의지는 불가역적인 그의 삶의 방침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주변의 만류에도 노구를 이끌고 그곳에 도착한 그가 불과 두 달여 사이에 건강이 악화되어 임종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반드시 그곳에 가서 생을 마감할 강한 의지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만든다. 임종을 맞이한 1941년의 이주를 포함한 세 차례에 걸친 그의 중국행은 “그 몸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돌아갈 뿐이다”라는 유자 본령을 향한 그의 일관된 소신이자 투신이었다.³¹⁾

30) 金佑林, 앞과 같음, “辛巳(1941)四月, 又作遯行, 抵吉林省之永吉縣山隈子, 先遣長子奎漢, 僦設莊園, 公繞至而疾作, 沉呻閨月, 至六月二十二日, 終命于僦舍, 公時七十二歲. 將行, 親戚朋友, 皆以臨年遠涉, 恐有他患, 止之, 不聽曰: 吾何求哉? 潔吾身而埋于潔土, 斯已矣. 於其卒前數日, 命其子曰: 我死即隨死處理之, 勿爲返葬. 又不宜妄有營求以備儀物, 雖裸葬無傷也. 吾今來此, 決不欲更渡鴨江, 勿違吾志, 可也.”

31) 『孟子·萬章』, “聖人之行, 不同也, 或遠或近; 或去或不去, 歸潔其身而已矣.”

요컨대 첫 번째 이주는 중국으로 떠난 선유(先儒)들의 사업에 동참하려는 배경이 강했고, 두 번째는 농장 개척의 좌절 이후 이를 수습하고 재건하려는 의지에서 성사되었다. 마지막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며 평생 지켜온 유자의 신념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내면의 실천이었다.

III. 중국 봉천 이주 전후의 시적 면모와 지취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독립운동의 면모나 학술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은일(隱逸)을 추구하는 지사의 모습으로 일관했다. 그러하기에 그의 삶은 스스로 원칙과 소신을 세운 채 그 시대가 만든 각종 부조리와 불합리에 맞선 무명의 식민지 유자들의 기상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그의 생애는 큰 족적을 남긴 특정한 소수의 인물이 아닌, 시대의 조류와 풍파 속에서 고뇌하고 번민했던 당대 지방 유림의 일반적인 면모를 헤아리게 한다.

그의 삶의 궤적에 따라 그의 시 역시 유사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의 시집 『도암집』에는 모두 ‘98제 107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³²⁾ 그는 수학기에 저술한 「과거론(科擧論)」에서 “현재 과거에 응시하는 선비들은 필경 실리 없는 공언(空言)으로 임금의 이목을 어지럽게 할 뿐이다.”라며 사장(詞章)이 아닌 도학에 기초한 실학(實學)에 매진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³³⁾ 즉 당초 그는 문장을 가다듬는데 큰 열정을 쏟지 않았고

32) 이는 권수에 수록된 「招隱辭」, 「反招」를 제외한 수치이다.

33) 『陶庵集』卷4, 「科擧論」, “士之應之者, 畢竟以無實而空言, 塗人主之耳目已耳.”

또 그에게 있어 이때는 문학을 논할 시기도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국치 전후 잦은 이거와 함께 중국으로의 이주, 또 시사(時事)와 거리를 둔 채 사실상 두문불출하며 간혹 유람의 길을 떠난 이유로 그의 시 작품은 비교적 소량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의 시는 72년 생애를 압축적이면서도 선명히 담고 있는데, 특히 식민지 시기 국내에 남아 고뇌하고 또 이주를 위해 중국으로 향했던 유교 지식인의 내면과 지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시는 그의 생애주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시대별 그의 내면의 흐름이 여실히 표출되어 있다. 그의 생애를 중심으로 작품의 주요 주제 의식과 지취(旨趣)를 대별하면 아래와 같다.

1. 학문에 대한 열정과 국난을 맞은 자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동정과 면우의 지도 하 그는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며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자의 길이란 맹자가 언급한 것처럼 매우 험난한 것이며 당시의 현실은 미증유의 혼란기였다.³⁴⁾이에 의욕과 열정으로 충만했던 그에게도 학문에 침잠하던 청년기는 성취의 기간이면서 또 상당한 고통의 시간이었다.³⁵⁾ 당시

34) 『孟子·告子(下)』, “天將降大任於斯人也, 必先勞其心志, 苦其筋骨.”

35) 「행장」 등의 자료를 근거로 이 시기의 창작으로 추정되는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연도	시제
1882~1913	遠遊, 白雲, 次靖節集停雲詩韻, 竹嶺行, 鳳凰山, 龍巖, 戊子(1888)春陪東亭李先生與洪愼窩姜鶴山族姪將向關東到洪濟庵, 石開村, 穿川, 榆嶺, 五十川, 竹西樓, 陵波臺, 觀海, 東海碑, 黃池, 外池, 太白山, 豐新居偶吟, 新池與李進士季七言懷, 次呈李鳳卿新居韻, 和李鴻卿, 與李鳳卿李舜佐共賦, 臨川書院, 石門 (총 25수)

그는 학문에 전념하는 과정에서 약을 써도 효험이 없는 기울(氣鬱)로 학문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³⁶⁾ 이에 스승의 배려로 일행과 함께 동쪽 바다로 향하게 되었고, 답답한 속내를 다스려보고자 했던 그의 마음에는 서책 속의 진리가 아니 대자연의 ‘철리(哲理)’를 몸소 체득하고자 하는 열의가 가득 차게 된다.

우연히 동쪽 바다로 향해 소백산 남쪽에 당도하니	偶向東溟到白南
푸른 시내 소리 안에 몇 칸의 암자 있네.	碧溪聲裏數間庵
세상 사람들은 산중의 즐거움을 모를지니	世人不知山中樂
못 봉우리를 가는 길 험난하다 다투어 말한다네.	爭說群巒去路巉 ³⁷⁾

이 시는 1888년 동해를 유람하기 위해 길을 떠난 일행이 한 암자에 도착할 때의 심정을 담고 있다. 겨우내 얼어있던 산중의 계곡이 봄을 맞아 얼음을 뚫고 쏟아내는 기운과 그 푸른 계곡 사이에 고즈넉하게 자리한 암자의 모습을 드러내며, 눈 앞에 펼쳐진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듯 세속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풍경과 함께 하는 길에서, 울기가 가득했던 그의 심사가 다소 해소되고 있다. 이에 험난한 산세는 오히려 더 큰 기대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행 이후 그는 학문에 더욱 침잠하려 했지만, 그의 열정과 포부와는 무관하게 대한제국의 국운은 이미 거스를 수 없을 만큼 기울어 망국은 갈수록 현실화 되고 있었다. 이 사이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준 그의 스승 이병호가 1908년 사망하였고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제병합

36) 丁奎應, 앞과 같음, “前是府君, 以病不克專意攻學, 其病氣鬱, 知藥不療能治, 使欲遍遊名山川, 以解氣鬱.”

37) 『陶庵集』卷1, 「戊子(1888)春陪東亭李先生與洪愼窩姜鶴山族姪將向關東到洪濟庵」.

되었다. 본래 그 역시 일가이자 지우였던 정태진(丁泰鎭, 1876~1960)과 유사하게 다산의 학풍과 함께 이진상의 학맥을 이어받은 동정과 먼 우의 성리설의 영향 하, 실학적 가풍과 경세적 학풍을 진작해 가던 학자였다.³⁸⁾ 하지만 시대적 상황은 그의 이상을 주저앉게 했고 나아가 그의 내면에 지대한 좌절감과 자괴감을 남기게 된다. 아래의 시는 경술국치 이듬해, 세상을 피해 풍기로 이주한 그의 복잡다단한 내면을 담고 있다.

시냇가의 춘초(春草) 시름을 부추기듯 푸르고	濶邊春草喚愁青
동부(洞府)는 느긋하고 여유로워 속세의 정이 아니네.	洞府寬閒不世情
우주가 생긴 이래 감개가 많을지나	宇宙歸來多感慨
느지막이 동국에 온 나의 생 부끄럽기만 하구나.	晚來東國愧吾生 ³⁹⁾

속세를 피해 옮긴 이거지에서, 봄날의 계곡과 푸른 봄풀들을 바라본 시인의 마음에 평온과 안정이 찾아온다. 그곳은 세속과 단절된 곳이자 대자연 속 우주로 돌아온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다. 이곳에서야, 그는 비로소 감정의 안정과 내면의 고요를 다소나마 느끼게 된다. 앞서 인용한 시와 유사하게 그는 이른바 ‘세정(世情)’과 철저히 단절되는 삶을 회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시 그에게 찾아온 감정은 “괴(愧)”, 즉 부끄러움이었다. 유림을 향한 일제의 탄압과 회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이 시기, 속세를 피해 이곳에 온 그가 자연 속에 머물며 온전히 성정을 도야하거나 학문에 매진할 수 없는 이유는 곧 내면 깊숙이 일고 있는 부끄러움과 대면해야 했기 때문임을 보여준

38) 최영성, 「외재 정태진의 한시 연구」, 『연민학지』 37집, 연민학회, 2022, p.144.

39) 『陶庵集』卷1, 「豐新居偶吟」. 참고로 동부는 신선이 산다고 전해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다. 그곳은 세상과 거리가 있고 세정이 미치지 않는 곳이지만, 그가 발을 딛고 있는 고국의 강토 전역이 이미 이민족의 지배에 놓인 현실에서 이곳 또한 예외일 수 없음을 절감하며 한없이 부끄러워진 것이다.

한편 그는 1912년 다시 성산으로 이거했지만 그의 심리적 평온은 더욱 요원하였다. 이에 그는 두보의 「춘망(春望)」을 떠올리며 “나라가 깨져도 산은 오히려 푸르고, 집안 빈한하나 달은 도리어 밝기만 하구나”라는 복잡한 심경을 전하며 “멀리 사상(泗上)의 수변을 그리워하나니, 나를 몰래 신역(神域)에 보내주게나.”라는 시로 중국행에 대한 내적 동경을 더욱 강하게 피력하게 된다.⁴⁰⁾

이렇듯 10대에서 40대 초에 해당되는 이 시기의 시는 스승과 함께 유람을 떠났던 기행시와 함께 이거 기간의 소회를 다룬 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초기의 시들은 잠시 서안(書案)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며 진정한 학문을 추구하려는 청년의 열망과 함께 그것의 좌절로 오는 비탄이 첨철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점차 ‘중화의 종가(宗家)’ 중국으로 떠나 유학의 전승과 나라의 독립에 일조하려는 의지가 시의 이면에 흐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산자의 번민과 고국을 향한 애수(哀愁)

1914년 그는 결국 유도의 쇠퇴를 막고 고국의 독립에 일조하고자 이승희·조정규 등이 머물고 있던 중국 봉천으로 향했다. 즉 그의 중국행은 단순한 유람이나 기행과는 거리가 먼 절박한 심사 속에 진행된 ‘결

40) 『陶庵集』卷1, 「新池(谷名)與李進士季七言懷」. “國破山猶碧, 家貧月尙明. …… 遙憐泗上水, 使我暗輸神.”

행'이었기에 당시의 시 역시 이산자가 된 자신의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⁴¹⁾ 중국으로 향하는 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된 감성은 역시 이역을 표류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소회였다. 그에게 이산은 조국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했던 '선산'을 등져야 하는 일이었기에, 이주에는 대단히 큰 용기와 함께 울민(鬱悶)이 따르는 일이었다. 고심 끝에 중국으로 발을 떼는 그 날의 그 순간, 그가 시를 통해 '떠도는 인생에는 주착(主着)이 없다 하더니, 바로 오늘 길 위의 사람 되었네.'라며 착잡한 소회를 전한 것은 이와 연결된다.⁴²⁾

이러한 심정은 이역을 향하는 순간 계속되어 “정처 없는 나의 생을 탄식하나니, 요동성의 내일에는 누구의 집에 기탁해야 할런가.⁴³⁾”와 같은 시구로 표출하며 긴 여정에 대한 불안과 내면의 그늘을 드러냈다. 또 과거 왕조시대의 기풍을 잃고 이제는 ‘옛’ 도성으로 변해버린 서울을 지나면서는 “유건(儒巾)에 옷자락 정제하고 운집한 것 일찍이 어느 날이었던가, 오직 청산만이 지난 세월과 같을 뿐이구나.”라며 망국에 대한 비탄과 회한을 표출했다. 그 또한 옛 풍모를 잃은 도성 서울을 향한 비감(悲感) 및 자탄(自嘆)의 감정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다.⁴⁴⁾ 고국을 떠

41) 「행장」 등의 자료를 근거로 이 시기의 창작으로 추정되는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연도	시제
1914-1917	甲寅(1914)春與季七將向西島途中口占, 過觀水樓舊址有感, 渡松堂津, 善山道中, 望金烏山, 曉發金泉, 過漢陽南門, 善竹橋, 謁崧陽書院, 滿月臺, 宿平壤, 大同江次鄭司諫韻, 渡鴨綠江, 高麗門, 鳳凰城, 到務安, 奉天城, 遼野, 南山里, 山裏小集(2首), 北山次成愚泉愚字韻, 病中書懷, 上巳日偶吟, 奉天覽古, 東家屯酬李石湖, 南家荒酬李鳳山, 南荒續會, 王家荒金君置酒屬會, 孤湖秋日訪李君義宅, 東湖, 東湖既望, 沙崗秋會, 夜坐(2首), 輓李大溪(5首), 輓孔太傅(3首), 輓族姪學初(2首) (총 46首)

42) 『陶庵集』卷1, 「甲寅(1914)春與季七將向西島途中口占」, “浮生無主着, 今日路中人.”

43) 위와 같음, 「曉金烏山」, “歎息吾生無主着, 遼城來日寄誰家.”

나는 과정에서 그는 시를 통해 쉽게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지만 애써 한 발 한 발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산자의 복잡하고 괴로운 내면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렇게 그는 압록강에 도착하게 된다.

(前略)

무지개 다리와 함께 패성사(挂星槎) 마저 끊어졌고 虹橋一起星槎斷
상선은 한가히 떠다니고 저물녘엔 젓대소리 땀도누나. 商舶閑浮晚笛廻
이곳 떠나는 남아에게는 도말야 다스릴 것 많을지니 此去男兒多管領
요산에 달 좋을 때면 누대에 올라봐도 괜찮으리라. 遼山好月可登臺⁴⁵⁾

시에 등장하는 홍교(虹橋)는 유가의 도통(道統)을 의미하며⁴⁶⁾ 패성사(挂星槎)는 중국으로 가는 사신 행차를 의미한다.⁴⁷⁾ 압록강을 건너는 그의 심사에는 먼저 청나라의 오랜 통치로 유가의 도통의 끊어진 것과, 중화로 향하던 사신 행차가 단절된 당대 현실에 대한 탄식의 감정이 올라온다. 비록 일개 망국의 유신(遺臣)이 되어 쓸쓸히 이곳을 건너게 되었지만, 그곳에 가서 자신에게 부여된, 또 해야 할 여러 일을 묵묵히 이행하고 실천할 것을 환기하고 있다. 또한 오랜 염원 끝에 자신의 몸을

44) 위와 같음, 「過漢陽南門」, “巾裾霧集曾何日, 惟有青山似去年.”

45) 『陶庵集』卷1, 「渡鴨綠江」.

46) 시에서 활용된 홍교는 주자(朱子)의 「무이도가(武夷棹歌)」, “일곡(一曲)”의 ‘홍교가 한번 끊어진 뒤로 소식이 없다네(虹橋一斷無消息)’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본래 소식이나 편지 등 쌍방을 이어주는 매개가 끊어진 것을 의미했지만 이후에는 도맥이 끊긴 것에 비유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다.

47) 본래 패성사(挂星槎)는 ‘별나라로 가는 뗏목’을 의미한다. 동진의 왕가(王嘉)가 여러 전설을 집성하여 편찬한 『습유기(拾遺記)』에는, 광휘를 받으며 사해를 일주하는 요임금 시대의 전설의 배의 이름을 패성사 혹은 관월사(貫月查)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이에 통상 중국으로 가는 사행 행차를 마치 빛나는 뗏목을 타고 은하수로 향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중화의 땅에 비로소 신게 되었기에, 이제 누대에 올라 밝은 달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작은 기대감을 표출하였다

압록강을 넘어 봉천에 도착했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했다. 먼저 그 역시 병자호란 이후 이곳에 다다른 조선의 문사들과 유사하게 현지에 서려 있는 통한과 수난의 역사를 외면할 수 없었다.⁴⁸⁾ 이에 그 또한 삼학사의 고절을 떠올리며 “열사들의 돌아가신 녀 어느 곳에서 조문하리오, 북릉(봉천에 위치한 청태종의 묘_필자주)의 춘주(春晝)에는 물만 도도히 흐르는데.”⁴⁹⁾라며 애통에 잠기기도 했다. 이러한 심사에도 그는 농장 개척에 힘쓰는 동시에 이승희가 이끄는 동삼성 한인공교회의 일원으로 곡부를 다녀오는 등 의욕적으로 활동했지만 결국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다.⁵⁰⁾ 이에 그는 1916년 겨울 일시 귀국했는데 이듬해 2월, 23살 연상의 선유(先儒)이자 동지인 이승희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된다.⁵¹⁾

푸른 갈대 쓸쓸히 차디찬 연기 돌렀나니	蒼葭瑟瑟冷煙圍
서쪽 변방의 거친 밭의 계획은 이미 그르친 것이런가.	西塞荒田計已非
서글픈 마음에 홀로 선 서리 내리는 밤	悄然獨立天霜夕
적적한 산하에 눈물만 절로 흘날리는구나.	寂寂河山涕自飛 ⁵²⁾

48) 김기림, 「조선인의 심양 공간 인식 양상」, 『우리문학연구』 51집, 우리문학회, 2016, p.16.

49) 『陶庵集』卷1, 「奉天城」, “烈士歸魂何處吊, 北陵春晝水滔滔.”

50) 참고로 이 시기 그는 『曲阜紀行』과 『遼中日記』를 남겼지만 일실 되었다고 한다. (金佑林, 앞과 같음, “小著曲阜紀行遼中日記, 佚不收, 惜哉.”)

51) 金佑林, 앞과 같음, “及還至德興堡, 則所作農, 已被沒落無收, 不得已撤歸故國. 明年(1916)大溪公殉于遼寓, 而共事同志, 壹皆落落難合.”

52) 『陶庵集』卷1, 「輓李大溪(其四)」.

창가(蒼葭)는 푸른 갈대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귀인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는 시어이다.⁵³⁾ 이승희의 죽음은 마치 푸른 갈대에 차가운 연기가 둘러싼 것과 같은 참담한 감정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봉천에 모인 유럽 동지의 뜻이 좌절된 것과 같은 큰 상실으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이승희와 함께한 시간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승희는 그곳에 모인 정돈섭을 포함한 이들 유럽을 ‘마음이 같은 집우(執友)’로 지칭하며 깊은 신뢰를 표출한 바 있다.⁵⁴⁾ 그곳에서 이승희와 함께 농장을 개척하고 덕홍보의 좌절에서 오는 고통을 함께 나눈 정돈섭이었기에 이들은 나이를 초월한 우정과 신뢰를 함께 공유했을 것이다. 더욱이 당시 그는 난맥에 빠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국내로 돌아온 상황이었기에, 이승희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비통한 마음을 담아낸 그의 시는 무한한 비절(悲絶)이 포착된다.

국내에 머물며 이승희의 소식을 들은 그는 다시 봉천으로 향해 새로운 농장건설에 착수한다. 이는 이승희 다음 세대로서 선유들의 유지를 받들어 해외 공교(孔敎) 운동을 계승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이승희라는 거유(巨儒)가 부재한 ‘동삼성한인공교회’의 활동과 역량에 상당한 부침이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내면에는 녹록지 않은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함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깊은

53) 창가는 곧 “검가(蒹葭)”를 의미한다, 『시경』·「검가(蒹葭)」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됨을 애석하게 여기는 애탄을 표현한 시로 “긴 갈대 푸르고 흰 이슬은 서리 되었네. 저기 바로 저 사람이 물 저편에 있도다. 물길 거슬러 올라가만, 험한 길이 멀기도 하네.(蒹葭蒼蒼, 白露爲霜。所謂伊人, 在水一方。溯洄從之, 道阻且長.)”라고 하였다.

54) 李承熙, 『韓溪遺稿』卷5, 「與孔少師少霑」, “此去趙貞奎·李光龍·丁敦燮·李鉉德, 僕素敬執友, 同此心者.”

그리움이 찾아오게 된다. 비록 그곳이 선망하던 중화의 땅이고 옛 고구려의 고토이며 또 많은 동지와 동포들이 함께하는 장소였지만, 낯선 풍토와 기후는 이곳에 당도한 많은 유림들의 발길을 고국으로 돌리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을 만큼 힘든 것이었다.⁵⁵⁾ 이런 배경에서 이 시기의 한시에는 이산자가 느끼는 고뇌가 역력히 흐르고 있었다.

복숭아에 비로소 붉은빛 펴고 버들도 황금빛 되니	桃始舒紅柳始黃
새들 방초로 돌아오고 나비는 담장을 지나가네.	鳥歸芳草蝶過墻
고요히 만물 지켜보니 모두 기쁨이 묻어나오는데	靜觀萬物皆欣託
천애의 고독한 객손만 남몰래 애간장 끊어지누나.	孤客天涯暗斷腸 ⁵⁶⁾

시에는 음력 3월 삼짇날을 맞은 그의 고독한 내면이 고스란히 또 가감 없이 담겨있다. 당시 그는 고된 이역 생활에 이미 쇠약해진 몸 상태로 늦봄을 보낸 뒤, 이역에 홀로 남은 자신을 애잔하게 여기던 상황이었다.⁵⁷⁾ 이런 그에게 찾아온 ‘삼짇날’이란 그의 춥고 고단한 일상에 더 큰 애수를 가져다주고 있다. 나무와 방초, 새와 나비로 인해 완전한 봄기운을 실감하게 되면서, 그의 고독감과 향수는 더욱 짙어진다. 그렇게 홀로 그곳을 지키던 그는 ‘기운생동’하는 만물들 사이에서 깊은 고독에 잠긴 채, 말로 전할 수 없는 또 소리 내어 울 수 없는 심정을 남몰래 삼키고 있었다.

하지만 거대한 결심 끝에 당도한 이곳에서 그는 이러한 감정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덕홍보의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농

55) 한길로, 앞의 논문, p.84.

56) 『陶庵集』卷1, 「上巳日偶吟」.

57) 위와 같음, 「病中書懷」, “寒衣未祛送殘春, 獨在偏憐異域身.”

장을 개척하기 위해 여전히 헌신해야 했었다. 그의 내면에는 이따금 큰 좌절과 비애의 감정이 찾아왔지만, 그에게는 이역의 땅에 던져진 ‘동지(同志)’들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모였고 험난한 그곳에서의 생활을 함께하며 유도에 대한 또 조국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존재였다. 즉 자신의 내면을 쉬이 드러낼 수도 또 심분 의지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대상이었다

(前略)

이지러진 세상에 도타운 연분으로 머물 땅 있음을 알아	缺界優緣知有地
백 년 평생의 그윽한 뜻 무형에 들여놓았네.	百年幽意入無形
고향의 강산 꿈에서 자주 들어가 보는데	舊國江山頻入夢
취해 왔어도 어찌 꼭 홀로 깨고야 마는지.	醉來何必獨爲醒 ⁵⁸⁾

이 시는 2차 중국행 기간인 1917년 7월에 작성된 시이다.⁵⁹⁾ 이날 함께한 동료들은 동호(東湖)에서 뱃놀이를 즐기며 모처럼 회포를 풀며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⁶⁰⁾ 이 과정에서 탄생한 시들은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격려의 정서와 함께 깊은 동지애가 그 기저에 흐른다. 시에는 난세를 피해 함께 봉천에서 지내는 동지들과의 만남을 진귀한 인연으로 표현하며 그들을 향한 신뢰를 드러냈다. 그리고 함

58) 『陶庵集』卷1, 「東湖(在潯陽四十里)」, 참고로 동호는 현재 遼寧省沈陽市於洪區元江街에 위치한 「丁香東湖公園」 일대로 추정된다.

59) 의령 출신의 명유(名儒)이자 독립운동가 안창제(安昌濟 1866~1931)에 따르면 이때는 1917년 7월로 기망(既望)을 기념하는 소회(小會)를 가졌다. 함께한 이는 정돈섭과 김사진을 포함 이문주(李文周)·이인섭(李寅燮)·이기정(李基琨)·고영한(高永翰)이었다. (安昌濟, 『松隱遺稿』卷1, 「丁巳秋七月既望與西狂綠樵兄弟及丁陶菴敦燮 金西洲思鎮 李石洲文周 李鳳山 寅燮 李基琨高永翰共船遊于丁香屯東湖」)

60) 『陶庵集』卷1, 「東湖既望(是夜泛舟送諸益, 獨散步湖上)」.

께 있는 이 장소는 다름 아닌 무형 즉 ‘도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곳으로, 일평생 간직해 온 자신들의 깊은 뜻을 의탁할 수 있는 공간임을 밝혔다.⁶¹⁾ 다만 동지들과 함께한 주회(酒會)의 자리가 무르익자 간절한 고향 생각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취기(醉氣)가 가득해도 결코 그것은 간절한 고향 생각을 이길 수 없었다. 시를 통해 그는 홀로 감내해야 했던, 꿈에서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출하며 자기 위로와 함께 동지들의 시름을 십분 헤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롭게 시를 읊을 자유조차 빼앗긴 고국을 벗어난 그의 시는 이렇듯, 깊은 동지애와 함께 고국을 향한 애수가 견고히 응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우세의식의 고조와 결신(潔身)에 대한 열망

상술한 것처럼 그의 두 번째 중국행도 결국 실패하여, 귀국하고 말았다. 스승 곽종석의 죽음 이후 피세와 결신을 향한 그의 태도는 강하게 지속 되었는데, 그는 행적을 최소화하고 때때로 동지들과 함께 유람을 가는 것으로 난세에 대처했다.⁶²⁾ 이러한 과정이 담긴 그의 시에는 ‘은일(隱逸)의 추구하고 결신(潔身)’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고 있었다. 즉 식민지 시기를 살아가야 했던 지식인의 내면에 쌓인 ‘갈증과 부끄러움’ 그리고 세파에 더욱 희미해진 유도(儒道)를 지켜봐야 했던 탄식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⁶³⁾

61) 『淮南子』·「原道訓」, “肅然應感; 殷然反本, 則淪於無形矣. 所謂無形者, 一之謂也; 所謂一者, 無匹合於天下者也.”

62) 1919년~1937년까지, 이 기간 「행장」 「선부군전」에서 그에 대한 언급은 대단히 소략하여 곽종석의 죽음과 유람에 관해서만 짧게 언급되어 있다.

그는 이따금 동료들과 함께 유람하며 울분을 달랬다. 하여 그의 시에는 여전히 세상과 곁돌며 산천을 유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그것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내심을 담담히 담아냈다. 1927년 죽령 기행 길에 작성된 일련의 작품에는 짙어진 우세(憂世)의 심정이 매우 잘 나타나 있다. 시에서 그는 “풍진 가득한 세상에도 한가한 날 있을지니, 나의 신세가 편주(片舟)와 같다면 죽하리라.”⁶⁴⁾라며 여전히 세상을 부유하며 살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세상을 떠돌며 미친 듯 다니는 나의 신세가 가련하구나.”⁶⁵⁾라며 비탄의 감성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제 말엽으로 치달을수록 식민당국의 착취는 더욱 가혹하게 민중들의 생활에 침투했고, 이른바 세도(世道)는 그 자취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그럴수록 그는 오직 자연에 기대어 근심 가득한 자신의 내면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

온산에 구름 잠들고 종소리 멀리 퍼짐에	萬山雲宿鐘聲遠
온 골짜기의 서리 맑아지고 전하는 이야기도 깊어지네.	一壑霜清葉語深
삼대의 위위(威儀)는 다시 누가 바로잡으랴	三代威儀更誰是

63) 「행장」 등의 자료를 근거로 이 시기의 창작으로 추정되는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연도	시제
1918-1941	漢城遊將忠壇, 己巳(1929)四月十二日與黃晦老李大運金謹夫金士顯權聲之約四郡之行會于白洞之正庵, 水鐵橋道中, 竹嶺, 長林道中, 宿槐坪金熙采家, 舍人巖, 二樂樓, 龜潭, 龜潭泛舟, 玉筍峰, 赤城, 堤川, 義林湖, 茅山留宿, 映湖亭, 寧越道中. 拜鵲亭, 雲莊壁, 子規樓, 錦江亭, 彰節祠, 清冷浦, 魯陵懷古, 普德寺, 正陽村舍, 南窟, 江路醉歸, 宿寧越邑, 送三人之三仙巖, 丙子(1936)秋復作丹陽行至下津, 龜潭卽事, 向仙巖, 入法喜洞天, 宿法喜寺, 白谷秋夜, 辛巳(1941)四月書, 感懷一絕. (36首)

64) 『陶庵集』卷1, 「義林湖」. “風塵有假日, 身世足片舟.”

65) 위와 같음, 「江路醉歸」, “醉哦仙窟還如夢, 浮世狂蹤更自憐.”

방광한 강호에서 나의 읊음 부끄러울 뿐이네.

江湖放曠愧吾吟⁶⁶⁾

일학(一壑)은 그윽한 초야의 산수나 은거지를 의미하고, 엽어(葉語)는 대대로 전해지는 말이나 고사를 말한다.⁶⁷⁾ 위 시는 1936년 단양의 구담(龜潭)을 둘러보고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영주의 희방사(喜方寺, 즉 法喜寺)에 잠시 머물던 때에 작성되었다. 시는 사찰에 머물며 잠시 그윽한 자연의 세계를 만난 그의 마음에 찾아온 평온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내면에는 무너져가는 ‘유교적 세계’에 대한 탄식과 회한이 가득하고 더욱 거침없고 방광(放曠)해진 세상에 무력하게 살고 있기에 부끄러운 감정이 고조됨을 알 수 있다. 이미 60대 후반의 나이에 접어든 노구가 되었지만 ‘부끄러운 마음’은 여전히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남아 있고, 또 1910년 이래로 지속된 ‘우세(憂世)’의식은 더욱 짙어져 있음이 확인된다.

중년 이전의 작품들이 유가적 명리(明理)를 다룬 시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후 일제 말엽까지 이르는 그의 시에는 “어떤 시라도 지사의 아득하고 막막한 슬픔”이 흐르고 있었다.⁶⁸⁾ 그리고 일제 총동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41년 4월 그는 72세의 나이로 다시 중국 길림 영길현(永吉縣)으로 건너가게 된다. 그의 마지막 이민이자 최후의 거취였다.

누가 백 년 세월이 길다 이르렀던가

誰謂百年長

돌이켜 생각해보니 눈물만 옷깃에 가득하구나.

回思淚滿襟

66) 위와 같음, 「宿法喜寺」.

67) 일학은 곧 일구일학(一丘一壑)의 준말로 『漢書』·「敘傳(上)」의 “漁釣於一壑……棲遲於一丘”에서, 엽어(葉語)는 『淮南子』·「修務」의 “稱譽葉語, 至今不休”에서 기원했다.

68) 裴東煥, 「跋」, 『陶庵集』卷6. “自世變以後, 則尋常謾詠, 何莫非志士冥漠之悲.”

살아온 평생 하나 이룬 것 없어도
단지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고자 했었다네.

生平無一事
要不愧吾心⁶⁹⁾

위 시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으로 중국으로 향하는 무겁고도 서글픈 내면과 평생에 걸쳐 품어온 그의 의지가 압축적으로 담겨있다. 사실상 이 시는 평생을 부끄러움과 마주하며 살아야 했던 그가 생의 마지막을 위하여 중국으로 떠나며 남긴 유훈과도 같다. 그의 중국행은 1917년 이후 중단되었지만 그의 내면에 중국의 자리는 여전히 굳건했음을 위 시는 증명하고 있다. 1941년 72세가 된 그의 중국행은 매우 무모하고 또 위험한 것이었기에 주변에 만류는 응당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에게 중국행은 죽음보다 강렬한 열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평생 지켜온 ‘결신(潔身)’의 가치가 죽음과 함께 이민족의 지배에 놓인 강토에 묻히며 퇴색될까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결국 그는 부끄러운 삶과 함께 ‘부끄러운 죽음’을 거부한 채 또다시 이역으로 다시 향했고 그것은 다름 아닌 “결신(潔身)과 자정(自靖)”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⁷⁰⁾ 이렇게 그는 ‘결토’로 생각되던 중국에 도착한 지 두 달 뒤, 마침내 72세의 인생을 마감하였고 1910년 이후 약 30년간 이어진 ‘망국포중(亡國逋踪)’의 여정 또한 종료되었다.

3차례에 걸친, 약 22개월 간의 중국행에서 그가 남긴 가시적인 성과는 사실상 없었다. 이승희와 같은 선배 세대의 유지를 계승하고자 시도했던 이주와 농장 경영 모두 결국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기도했던 유교 전통의 재건과 독립운동의 원조와 관련된 영향 역시 미미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그의 삶과 시들은 유교적 명분과 유자의 본분을 상기하

69) 『陶庵集』卷1, 「辛巳(1941)四月書感懷(一絶)」.

70) 裴東煥. 위와 같음, “蓋以亡國逋踪, 只爲潔身自靖而已.”

며 그것의 실천에 헌신했던 이른바 한국의 유학전통을 상기하기 만든다. 즉 이미 유교의 시대가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또 당시는 전쟁의 광기가 세상을 뒤엎고 있었지만, 과거 세대가 보여준 유학정신의 실천은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음을, 그의 삶과 시가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정돈섭의 삶은 대한제국 말기와 식민지 시기를 관통하고 있었다. 청년 시절 학문에 몰두하며 열의를 다해 이치를 궁구하던 그는, 계속되는 시대의 혼란과 풍파에 크게 좌절하였다. 망국의 현실 앞에 그는 ‘비타협의 길’을 모색했고, 그 길은 바로 중국으로의 이주였다. 현실적인 난관으로 그것이 좌절되어 국내로 돌아왔지만 말년에는 자신이 온전하게 죽을 장소로 중국을 택하여 이민족의 지배에 놓인 땅에 묻히지 않으려는 의지를 십분 표출하고 또 실행에 옮겼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유자의 소명에 충실해지려는 것으로 곧 학자의 본분을 의미했다. 그에게 학문의 도는 “본체를 밝히고 실지(實地)를 실천하는 것일 뿐”이었기 때문이다.⁷¹⁾

이러한 그의 삶의 지향은 그의 한시에도 단적으로 드러났다. 20대의 한시에 나타난 열정과 좌절은 그 시대 청년 유림의 표상과도 같았다. 또한 중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 모인 동지들과 함께 나눈 수창시 속에 담긴 객수와 애환의 일면은, 가재를 정리한 뒤 노구를 이끌고 망망한

71) 丁奎應, 앞과 같음, “嘗曰：學問之道無他，明本體踐實地而已。”

요동 땅으로 향한 이른바 ‘근대 유람’의 내면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었다. 즉 이역 중국에서 탄생한 그의 수창시는 곧 한중 문인이 아닌 바로 고국의 동지들과의 의리와 동지애를 담고 있어, 이 시기 한시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끝으로 중국 이주의 좌절 이후 다시금 국내로 돌아온 시기의 한시는 시대의 혼란에 대한 깊은 한탄과 탄식, 불안과 자괴의 일면을 면모를 곡진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그의 한시는 대한제국의 망국과 식민지 시기로 이어진 근대 전환기 유자들의 내면을 응변하는 작품이었다. 망국이라는 비통한 현실과 붕괴되어 가는 유교 전통을 목도하면서 나타나는 ‘부끄러움’을 해소하는 길을 마지막까지 모색했던 지사(志士)의 자의식이 작품의 큰 물줄기였다. 또한 ‘죽음’을 위해 택한 마지막 중국행은 19세기 이래로 중국으로 향했던 수많은 유자들이 보여준 의리 정신의 계승이자 ‘유교적 비타협’의 종착점과 같았다. 특히 그의 삶의 궤적과 함께 한시 속에 나타난 한국 한문학의 새로운 창작 환경과 정서는 분명 흡시할 수 없는 지점이자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본고가 그의 삶과 작품을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루면서, 세밀한 분석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한계로 인정된다. 나아가 그의 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분석 및 그와 함께 활동했던 여타 인물과의 비교 연구 역시 필요하다. 차후 연구를 기약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陶庵集』, 『俛宇集』, 『松隱遺稿』, 『韓溪遺稿』.

김기림, 「조선인의 심양 공간 인식 양상」, 『우리문화연구』 51집, 우리문화회, 2016, pp.7-34.

능곡정수(熊谷正秀), 「중국 길림성 영길현의 조선족」, 『아세아연구』 35-2집,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2, pp.211-226.

설석규, 「면우 광종석의 성리학 이해와 현실대응 자세」, 『오늘의 동양사상』 11집,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4, pp.349-380.

성주현, 「1920년대 유림계의 내지시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3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pp.103-144.

유지웅 · 황갑연, 「간재 전우의 시대인식과 이론적 배경」, 『유교사상연구』 82집, 한국유교학회, 2020, pp.91-117.

정순목, 「臺灣 · 中國에서의 退溪學 研究」, 『한국의 철학』 19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1, pp.19-37.

최영성, 「외재 정태진의 한시 연구」, 『연민학지』 37집, 연민학회, 2022, pp.141-165.

한길로, 「물와 김상옥의 「중주기행」 고찰」, 『석당논총』 80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1, pp.67-90.

_____, 「1910년대 지방 유림의 중국 이주 과정과 귀향의 동인 고찰」, 『인문논총』 79-1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pp.155-180.

Abstract

A Study on the Life and Poetry World of Doam
Jeong-Donseop

- Focusing on before and after immigration to China -

Han, Gil-ro

Doam Jeong-Donseop, a native of Yeongju, Yeongnam, is a modern Confucian intellectual who has been living in the provinces to avoid the colonial reality and has tried to "practise" the Confucian spirit throughout his life. Around 1910, he was saddened by the reality of his country and chose to move frequently, and in 1914 he moved to China to jo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Movements of Confucian Religionization. He moved to China three times in all, and at the time of his last migration in 1941, he was 72 years old. And he died there. His poem strongly reflects the spirit and will of his life. The main emotions of literary works were passion for learning, longing for home country, and willingness to intransigent resistance. In short, through his life and Chinese poetry, it is possible to know the inner anguish of traditional intellectuals in the modern era who chose to move abroad. It also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poetry written by Koreans in the modern period and the way Confucian intellectuals respond to the reality.

Key Words : Jeong-Donseop, 『Doamjib』, Deokheungbo(德興堡), Korean Organization of Confucius Religion, Chinese poetry of Korea in modern

한길로

소속 : 길림대학 한국(조선)어학과 부교수

전자우편 : philosmind@naver.com

이 논문은 2022년 05월 01일 투고되어
2022년 06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2년 06월 24일 게재 확정됨.